



『안녕 — 선생님』

청소년 독서 지도안(9차시)



만든 이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안녕 선생님』 독서 지도안은 생각정원 출판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3347932>)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얼마 전까지 칠판 앞에서 있던 선생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괴물 부모의 탄생』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저자
김현수 명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강력 추천!

아픔을 딛고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 나아가길 응원하는 네 편의 이야기!

이 책은 ‘선생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공통 소재로, 이를 둘러싼 네 인물(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사이버 레커)의 서사를 풀어내는 새로운 형식의 문학 작품집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학교 공동체’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책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권리가 모두 균형 있게 존중될 때,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학교의 안녕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나인지도 모른다.”

- 이학준(학생)

나를 괴롭히는 학급 친구 박은비에 맞서기 위해 저녁에 몰래 찾은 학교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대신 반납해 달라며 건네준 책 한 권과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미소. 그게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생님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진 학교, 그렇지만 정작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사건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지금, 내가 선생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연극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 강수빈(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학부모)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의 변호를 맡아 가해자에게 겨누질 비난의 화살을 선생님에게 돌린 것.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학창시절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 이준이 선생님의 죽음 소식을 전해온 날부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잔뜩 움츠려있던 선생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선생님의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 학생을 만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면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고마웠어요.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 노수미(동료 교사)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떠났다. 충격받을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교장, 교감 선생님.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애도의 기간은 필요한 게 아닐까. 학생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환장할 일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죄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 강범준(사이버 레커)

돈을 위해 시작한 사이버 레커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 가짜 뉴스를 영상을 제작하면 섭섭지 않을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들어오니 말이다.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한창 고민하던 중 한 메일이 눈에 들어온다. ‘이미아 선생님 사건 관련하여 제보를 드립니다.’ 이 제보엔 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

차례 및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쪽수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 표지로 이야기 추측하기	4
읽는 중 활동	2차시	「알맞은 진실」	5
	3차시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관하여」	8
	4차시	「교문의 근조 화환」	11
	5차시	「모두의 거짓말」	14
	읽은 후 활동	6차시	모두의 이야기 표현하기
연계 활동	7차시	이별에 인사하는 방법	18
	8차시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9
	9차시	『안녕 선생님』 책 포스터 만들기	24

1차시 · 책 표지로 이야기 추측하기

1.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고 『안녕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상상해봅시다.



① 앞표지를 살펴보고, 이야기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시간적 배경은 봄일 것 같다. 왜냐하면 책의 표지에 벚꽃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 새 학기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 새 학기에 만난 선생님과 이야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다.

표지에 학생들은 뒷모습만 보이고 선생님의 앞모습만 크게 그려두었기 때문이다.

• 햇살이 예쁘게 비추는 것을 보니 밝고 따뜻한 이야기일 것 같다. 등등



② 뒤표지를 살펴보고, 이야기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책의 앞표지에 그려져 있던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야기인 것 같다.

• 학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같다.

변호사, 사이버 레커 유투버 등이 뒤표지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 주제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아픔을 딛고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응원하는 이야기'라는 한 줄이 가장 눈에 띄었다. 등등

③ '안녕'은 본래 어떤 뜻을 담고 있을지 사전을 찾아봅시다.

명사 ① 아무 탈 없이 편안함.

감탄사 ①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

④ 『안녕 선생님』에서 제목에 적혀있는 '안녕'은 위에 적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자 사용한 것일까요?

• 돌아가셔서 뵈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전하는 헤어짐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 선생님의 안녕(편안함)을 생각하며 붙인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차시 • 「알맞은 진실」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학준이의 시점에서 중요 사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tip.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 활동 지도 시 참고 자료입니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학준이의 시점과 생각
12쪽	박은비가 '나(학준)'이에게 열 반 권에서에게 프린트를 돌려주고 오라고 시킴. 사실 박은비가 전해달라고 한 프린트는 예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학준)가 좋아하는 예서 앞에서 망신당하길 바라며 장난을 쳤던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예서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 박은비가 너무 싫었을 것이다. (추측)
15쪽	송아름이 우리 반으로 전학 온 뒤부터 박은비와의 기 싸움을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박은비는 송아름이 자신의 노트를 일부러 치고 갔다며 말싸움을 시작한다. 말싸움을 하던 도중 송아름은 노트를 새로 사라며 박은비에게 던졌고, 화가 난 박은비는 교실 뒤 쓰레기통을 들고 와 송아름에게 얼어버린다. 그러자 송아름은 먼저 박은비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며 조마조마했을 것이다(추측), 불안했을 것이다. (추측)
27쪽	학폭위가 끝난 후, 박은비만 처벌을 받게 되자, 아이들은 박은비에게 내려진 학교의 결정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아이가 이미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박은비의 출석 정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였고 반 아이들 모두 동조하였다.	이미아 선생님이 곤란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그만하길 바랐을 것이다. (추측)
29쪽	박은비 부모님은 이미아 선생님을 찾아와 학교의 결정에 대한 화풀이를 하였다. 송아름의 아빠는 박은비네를 고소할 것이라며 학교에 몇 번이고 찾아왔으며, 이미아 선생님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학준)'는 이미아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추측)
32쪽	박은비의 괴롭힘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학준)'는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사서 학교에 도착했다. 긴 복도를 지나서 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아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잠깐의 대화를 나눈 뒤, 이미아 선생님은 깜빡할 것 같으며 '나(학준)'에게 책 반납을 부탁하였다.	선생님은 '나(학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었고, 오히려 나에게 예쁜 아이라고 하였다. 기분이 좀 좋았다.
9쪽 / 36쪽	이미아 선생님의 사건으로 임시 휴교 조치가 결정되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우는 아이들이 보였다. '나(학준)'은 임시 휴교 문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교 전체인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던 이미아 선생님의 소식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37쪽	교실 앞으로 갔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든 채로, 기웃거리던 아이들을 막아섰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교장 선생님은 교문 앞에 있던 근조화환을 모두 치우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미아 선생님을 위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에 '나(학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추측)
38쪽	학교 앞을 걸어가던 중, 어떤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이번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물었다. 당황해서 버벅거리다가 교문 안으로 달려갔다. 나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나를 인터뷰하려 했던 사람은 사이버 래커 강범준이었다. 방과 후에 정리를 하다가, 이미아 선생님이 반납을 부탁한 책에서 이미아 선생님의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송아름 엄마의 전화를 보고, 이미아 선생님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화가 난 '나(학준)'은 피시방으로 달려가 게시판에 실제보다 부풀린 글을 쓰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 말한 자신이 잘못 말했음을 깨닫는다. •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아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틀릴까 봐 걱정되었다.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48쪽	박은비가 시키는 대로 두 번째 글을 쓰고 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핫김에 작성한 글이라고 진술하고 훈방 조치가 되었다. 예서는 그런 '나(학준)'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들이 하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 '힘내세요'라는 말을 건네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생님의 유서를 다시 살펴보면 중, 선생님이 누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학준)'는 밝혀지지 않길 바라며 책을 폐휴지장에 던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내용으로 학준이가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이 밝혀지며,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궁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설했다. • 하지만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을지 모르는 그 날을 기억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알맞은 진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tip. 이야기를 읽으며 추측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학준이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이미아 선생님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왜 다른 감정이 느껴진 걸까요?

가슴께가 빠근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마음 아파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다. 왕래가 뜸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그때, 불현듯 떠오른 단어에 밀려온 섬찟함이 슬픔을 훑 밀어냈다.

3. 아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어둑한 복도 끝으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 나갔다. 선생님과 나만 서 있는 공간은 그 파동이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사이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이 조금 전 어떤 말을 하려다가 차마 꺼내지 못하고 삼켜버렸다는 걸. 한참 어린 나에게, 아니 이 학년 공식 짝파인 나에게 터놓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꼭 참았다는 말이다.

(중략)

“학준이는 참 예쁜 아이야. 가능성도 무한하고. 그거 잊지 마.”

“네? 네. 감, 감사합니다.”

여자에도 아닌데 예쁘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어른에게 언제 이런 말을 들어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내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걸 알지만, 무척 고마웠다. 가슴이 벅차 오르기까지 했다.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인데.

① 이미아 선생님은 학준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작성하는 질문

3차시 ·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관하여」

tip.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 활동 지도 시 참고 자료입니다.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강수빈 변호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강수빈의 시점과 생각
61쪽	송지훈 변호사는 강수빈에게 자기의 딸의 학폭위 변호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다. 이는 명령과도 다름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을 앞두고 있어 중요한 시기임은 틀림없다 생각하며 송지훈 변호사의 부탁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추측) •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69쪽	강수빈은 아들의 편에 서서 변호를 맡는 상황이 승진이 연관되어 있기도 했지만, 일진에게 맞선 아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중학생 때 학교폭력에 맞았다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7쪽	강수빈은 자신의 작전대로 송아름이 진술하게끔 하였고, 박은비 측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작전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면서도 흐뭇했다. 그리고 묘한 충족감을 느꼈다.
	강수빈 변호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이미아 선생님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였다.	당황해하는 이미아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 역시도 학생에게 관심 따위 없는 부류라고 추측했다.
86쪽	학폭위가 끝난 뒤, 박은비의 부모는 이미아 선생님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미아 선생님이 계속 시달릴 것이 뻔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박은비 부모에게 과도한 괴롭힘을 당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이준에게서 이미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무거웠다. 학폭위에서 부모에게 온갖 폭언을 받아내던 이미아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났다. • 이미아 선생님이 누군가의 아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혼란스러웠고, 자신을 자책하였다.
97쪽	이미아 선생님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난 후, 뉴스와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준은 학교에서 본 교장과 교감의 모습에 대해 정의감이 불타올라 이야기하였다.	정의로운 이준에게 자신이 송아름을 대리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다.
	이준에게 사실 자신이 송아름을 변호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준은 엄마인 강수빈에게 자기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였다.	강수빈은 아들이 자신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를 느끼고, 자신이 열다섯일 때의 기억을 회상하였다. 승진 욕심을 낸 것, 학폭위 사건을 맡은 것과 이미아 선생님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101쪽	학준이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약속을 잡고, 이수 특特的의 영상을 시청하였다. 카페에 들어온 학준이와 이미아 선생님의 유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학준이가 유서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로 다시 찾아가게 된다.	유서를 바탕으로 이미아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유서를 버렸다는 학준이의 말에 학교 폐휴지장으로 가서 유서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한다.
110쪽	유서를 폐휴지장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학준이는 강수빈에게 이미아 선생님의 유서를 전달한다. 이미아 선생님의 유서를 받은 강수빈은 K&S 로펌에 퇴사 통보 메일을 보낸 뒤, 이수 특特别的에 제보하게 된다.	수사기관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이수 특特别的에 제보하여 이미아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대하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tip. 이야기를 읽으며 추측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안녕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대하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랫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강수빈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미아 선생은 잘못이 없다는 걸.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담임 선생님이 희생양이 되는 건 이미 빈번한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 탓을 하는 게 학교로서도, 변호사로서도, 피해자나 가해자로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어른이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잘 견딜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강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미아 선생의 옛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이 그 회의실에서 이미아 선생에게 화살을 돌릴 때 당황하던 눈빛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왜 이제 그녀의 얼굴이 새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질문들이 강수빈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학교로 부임했던 걸까? 혹시 처음 담임을 맡았던 걸까? 그녀를 내가 지나치게 몰아세운 걸까? 강수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① 이미아 선생님의 부고(소식)를 듣고 강수빈은 왜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이미아 선생님께서 책임의 화살을 돌렸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등

② 이미아 선생님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빈 변호사는 왜 회의실에서 이미아 선생님께서 화살을 돌렸나요?

잘못을 가리기 어려울 때, 어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모두에게 쉬운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③ 혼란스러운 강수빈 변호사가 사무실을 나온 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빈칸 ㉠에 해당하는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아봅시다.)

이미아 선생 역시 누군가의 아이였을 텐데

4차시 · 「교문의 근조 화환」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노수미 선생님의 시점에서 중요 사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tip.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 활동 지도 시 참고 자료입니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노수미의 시점과 생각
116쪽	학교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학교에 출근하자, 이미아 선생님의 부모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임시 휴교를 공지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아 선생님의 소식이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추측) • 학생들은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휴교한 사실에 대해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125쪽	김현아 선생님과 함께 이미아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이미 그곳엔 많은 선생님이 계셨고, 이미아 선생님을 돕지 못해 자책하는 김희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선생님을 돕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고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 이미아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며, 힘들어했던 이미아 선생님의 표정이 떠올라 한숨을 내쉬었다.
163쪽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교감 선생님은 노수미 선생님에게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내자고 이야기 하였다.	이미아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장례식장에서 학교를 위해 조용히 있자고 하는 교감의 말에 화가 났다.
144쪽	노수미 선생님은 김희준 선생님과 함께 교장실에 가서, 이미아 선생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 도중, 이미아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장 선생님은 휴직을 희망하는 이미아 선생님에게 결국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추측)
149쪽	이미아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근조 화환이 갑자기 교문 앞에 세워졌다. 이를 보고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은 근조 화환을 치우라고 말하였고, 그날 오후에 회의실에서 다시 교직원 회의가 진행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전체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교장 선생님, 이미아 선생님을 이대로 그냥 보내면 우리는 교육자이길 포기 하는 거라고요.") • 이미아 선생님이 더는 비난 받지 않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154쪽	이미아 선생님의 담임 반이었던 이 학년 이 반 교실을 추모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김현아 선생님과 게시물을 정리하고 꾸미던 도중 이미 학생들이 이미아 선생님을 추모하며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진심 어린 쪽지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 이미아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 함께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동료 선생님들에게 감동했다. (추측)
160쪽	다시 찾아간 이미아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노수미 선생님은 혼자 조문을 온 교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근조 화환을 주문한 사람이 교감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보다도 먼저 국화를 교실에 가져다 둔 교감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아 선생님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음을 노수미 선생님이 깨닫게 된다. • 이미아 선생님의 사건을 바탕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추측)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교문의 근조 화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tip. 이야기를 읽으며 추측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미아 쌤이 붙인 불길을
절대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아 쌤이
저를 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반 교실을 이미아 선생님의 추모 공간으로 꾸미며,
김희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 붙입니다.
'미아 쌤이 저를 구했어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자신이 겪고 있지만, 참고 있었던 일에 대해 용기를 내어

변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등

3. 『안녕 선생님』의 세 번째 이야기, 「교문의 근조 화환」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래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교장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아이들이 동요할 만한 추모 공간을 만들기를 꺼렸지만, 교감은 누구보다 먼저 국화를 이 반 교실에 사다 놓았다.

“교감 선생님 따님 생각이 나신 거군요?”

“무슨 소립니까?”

“이 반 교실에 국화를 사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쫓아내고요.”

“아, 그거…….”

교감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교감의 의무로 갖다 놓았는데 점점 딸 생각이 났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과 괴로워 하는 젊은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딸이 미래에 학생들을 가르칠 학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① 교감 선생님은 왜 누구보다도 먼저 국화를 이 반 교실에 가져다 두었나요?

선배 교사이자 교감 선생님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킨 것이라 생각했으나,

점점 미래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딸과 이미아 선생님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5차시 · 「모두의 거짓말」

tip.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 활동 지도 시 참고 자료입니다.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강범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강범준의 시점과 생각
176쪽	저녁을 먹던 중 강범준은 조카가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리고 바로 뉴스를 통해 월령 중학교에서 일어난 이미아 선생님의 사건을 듣게 된다. 그리고 얼마 뒤, 조카를 괴롭혔던 학생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된 학교도 월령 중학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이성환과의 연락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학교에 대해 '개판'이라고 생각했다. • 사촌 조카인 '참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추측) • 사촌 조카인 '참미'를 괴롭혔던 학생이 월령 중학교로 전학갔다는 사실이 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 '참미'를 괴롭힌 아이가 강제 전학을 간 학교에서 교사의 자살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 영상을 제작할지 고민하였다.(186쪽)
186쪽	이미아 선생님의 뉴스를 접한 다음 날, 월령 중학교에 도착해서 인터뷰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등교하던 이학준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범준은 이학준을 우연히 만났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 학교 앞에 서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한 것 같다. (“정말 끔찍하네,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 학교 앞에 세워진 화환들과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억울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다.(추측)
190쪽	강범준과 이성환은 각자 자료와 사건 조사를 마친 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던 도중, 박은비와 송아름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전학생 송아름이 강범준의 조카 참미를 괴롭혔던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송아름의 아빠가 K&S 대형 로펌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놀랄만한 사건을 취재하여 높은 조회수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추측)
193쪽	월령 중학교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슈 토크 팀에게 K&S 대표의 부인(송아름의 엄마)가 연락하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받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사건, 이슈를 선점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에게 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 인터뷰를 했던 학준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찢찢했다. • 학준이가 어떤 것을 보았던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196쪽	강범준은 카페에서 만나 참미를 만나 송아름과 있었던 일에 대해 듣게 된다. 그리고 학준이의 열 만 부회장이었던 예서도 송아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미가 송아름에게 겪었던 이야기를 듣다가 참미의 손목을 보고 크게 놀랐다. • 송아름이 이번에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참미의 말에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터뷰 녹취를 시작했다.
205쪽	참미와 만나고 온 뒤, 강범준은 이성환과 K&S 로펌에서 영상 의뢰를 받은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학준이가 올렸던 인터넷 글을 읽게 되고, 객관적인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겨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 영상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는 송아름 엄마의 연락에 종종 마음이 흔들렸지만,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13쪽	예서와 인터뷰를 하며, 학준이에게 이미아 선생님의 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서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송아름의 엄마는 계속해서 이성환에게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올려달라고 제안한다. 계속 고민하던 강범준과 이성환에게, 강수빈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이 도착하여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름 엄마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는 선택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 같다.(추측) • 강수빈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결국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했을 것이다.(추측)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모두의 거짓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tip. 이야기를 읽으며 추측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안녕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 「모두의 거짓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랫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그렇긴 하지. <라쇼몽>같네.”

“<라쇼몽>?”

“옛날 일본 영화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조사를 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 달라. 심지어 당사자조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강범준이 고개를 젓자 이성한이 대답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한 거야.”

“각자의 사정이라…… 이번 사건에도 우리가 모르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근데 우린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진짜 숨겨진 사정을 밝혀볼 것이냐 아니면 다섯 장을 받고……”

“차차 생각해보자고. 선택은 우리 몫이니까. 나갔다 올게.”

① '사정'은 무슨 뜻일까요?

▶ 사정이란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의미하며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예문이 있음을 지도할 때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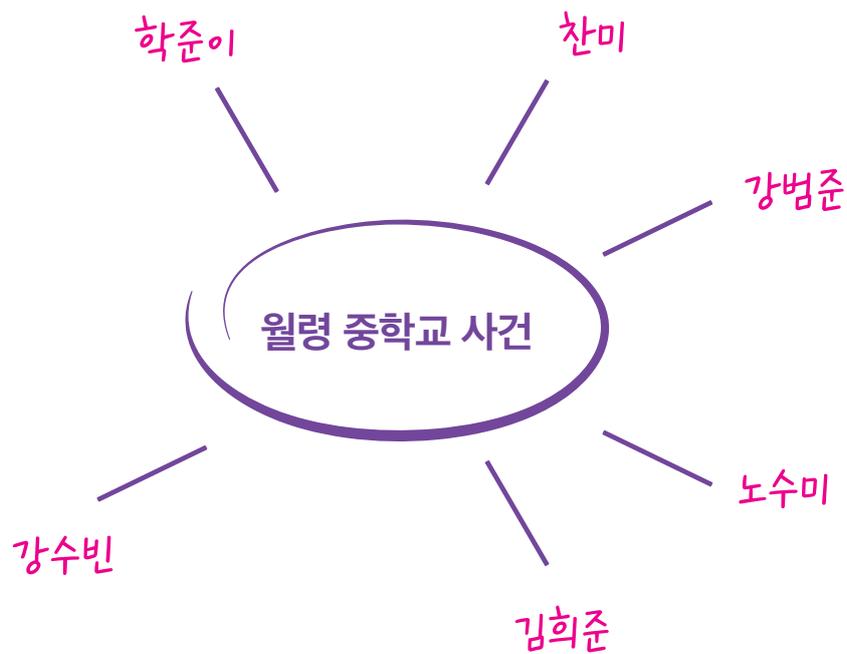
▶ 비슷한 단어로는 '이유, 처지, 상태, 까닭' 등이 있습니다.(네이버 국어 사전 출처)

② 각 인물은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tip.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각 인물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학준이	
강수빈 변호사	
교감 선생님	

6차시 · 모두의 이야기 표현하기

『안녕 선생님』은 4명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각 인물은 어떤 사건을 함께 하고 있었는지,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마인드 맵으로 정리해봅시다.



7차시 · 이별에 인사하는 방법

『안녕 선생님』은 가까웠던 어떤 이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은 늘 마음이 아리고 슬픕니다. 이별의 말을 직접 건네지 못하게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ti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활용하여 사전적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활용해보세요.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3575> (해당 페이지의 정의와 개설 부분 활용)

- ▶ 생물체의 생명이 다 하는 것입니다.
-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여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

2. 추모란 무엇인가요?

- ▶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

3. 월령 중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아 선생님을 어떻게 추모하였나요?

- ▶ 하얀색 국화 꽃다발을 교실에 가져다 두었다.
- ▶ 근조 화환을 세워 두었다.
- ▶ 포스트잇에 추모의 글귀를 적어 붙여두었다.

4. 영상을 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https://youtu.be/k-VeQynuW60?si=5OY2RP-fNAK1q_zc



①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 촛불에서 노란 리본으로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있다.

② 요즘은 왜 ‘포스트잇’을 추모의 표현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 ▶ 경쟁과 각자의 일상으로 메말랐던 사회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과거 자주 이용하던 추억 속의 손글씨가 등장하였고, 이를 적을 수 있는 수단으로 포스트잇이 사용되었다.
- ▶ 자신의 마음을 담은 손글씨를 통해 뜻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8차시 ·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 『안녕 선생님』에는 학생과 선생님부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학생, 담임 선생님, 교과 수업 선생님, 미화원 아저씨, 학교 지키미 (보안관)님, 행정실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급식실 배식 도우미 등등

2. 아래 활동지에 ‘나’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를 정리해봅시다.

- ① 나를 둘러싼 다양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가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②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③ 학교 밖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 동네 슈퍼 아저씨, 경찰관, 버스 기사님 등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적어보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tip. 학교 밖, 사회에서 ‘나(학생)’이 맺고 있는 관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활동지에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가며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사례를 담은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1번



경기도 김포 A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사 온 지 1년 되어갑니다. 이사 오는 무렵 아래층인 1층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학군 좋다는 동네로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가 많은 편이고 유치원이 이사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피가 말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등하교 시간에 쿵쿵거리는 거짚이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전 오후 잠깐도 아니고 매번 쿵 쿵! 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 악기를 두드리는 것인지 음악 소리와 함께 매번 쿵!쿵!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1층의 소리가 2층까지 올라오나 싶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서 유치원에 방문했습니다.

“소음이 위로 많이 올라온다. 어린이집이라 아이들이라 이해는 하지만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계신 것인지,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달

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한두 번 뛰는 걸로 이르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이건 아이들이 뛰는 거야’라고 세뇌하지 않으면 괴로울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바로 옆집과 이야기하다가 소음을 떠나 이제 진동까지 느껴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또 쿵쿵 거리는 소음과 심지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유치원 내부를 겨우 봤습니다. 안에서 맨 바닥에 쿵쿵이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하원 시간에 맞춰 찾아가, “실내에서 쿵쿵이 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니, “저건 쿵쿵이가 아니라 점핑 신발이라며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이라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제가 “용어 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인지 소음과 진동이 올린다”고 했더니 원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매트를 사용하면 미끄러지고 제어가 안 된다”는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기 자료 1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20/124058873/1>

○ 읽기 자료 2번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에 1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두통, 신경 예민, 우울증 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아 이제는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든 건 저희 윗집이었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물건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드르르 미닫이 문 닫히는 소리, 랑 하고 여닫이 문 닫히는 소리, 발망치 소리, 소리지는 소리 등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소리는 발망치 소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반복적으로 들

리는 쿵쿵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참고 참다가 한 달에 한번 관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위층에 이야기 잘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도 소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를 한 날이면, 오히려 쿵쿵하고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는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귀트임’이 시작됐는지 쿵쿵대고, 쿵 하고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까지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민원을 넣기도 수십 번이고 결국 위층 이웃이 우리 집을 찾아왔고 큰 소리로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매번 본인들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사람 피 말리게 하냐고 큰소리치는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한 하루는 쿵쿵 소음이 하도 느껴져서 관리소에 “위층 제발 조용히 좀 걸어 달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관리소에서는 “위층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윗집에 사람이 없는데 나만 소리를 들었다는 건가?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우연히 윗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정신병자인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관리소장님을 찾아뵙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님께 위층 소음만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인터넷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 소리 들릴 때 집안의 모든 소음(전자기기)을 차단하고 천장 가까이 벽면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동이나 울림은 없었고 쿵쿵 소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 윗집의 윗집 소음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괴로움을 당한 윗집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윗집과 대화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윗집을 만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도 사실 층간소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최근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신경 쓰지 못했고, “소음이 아래층까지 전해지는지 놀랐다”라며 “이제라도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서로 오해를 잘 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층의 위층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구마와 과일을 사 들고 위층의 위층에 갔습니다. “쿵쿵 뛰는 소음이 한 세대 건너서도 들린다”고 말하고 “밤에는 쿵쿵 소리를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지를 함께 건넸습니다. 위층에도 과일과 함



께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쪽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층의 위층 아주머니가 직접 내려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늘 조심한다고 하던 게 조금 방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더 어쩔 줄 몰라서 서로 조심하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위층도 더불어 본인들도 더욱 조심하겠다고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되찾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층간소음 기사 덕분에 층간소음의 원인이라도 찾고 이웃끼리 더욱 감정 상하는 일을 면하고 무엇보다 층간소음이 줄어들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위층이지 않을까 싶었던 점에 반성하고 있으며 진솔하게 사과했더니 이해해주는 위층과 또 조심하겠다고 바로 시정하는 위층, 위위층 이웃분들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계기로 층간소음 정도도 낮아지고, 저 역시 귀트임이 사라졌나 싶은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 읽기 자료 2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08/122075536/1>

① 읽기 자료 1번에서 나타난 갈등을 정리해보세요.

▶ 층간 소음 문제로 힘들어하던 사연의 주인공은 어린이집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하려 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층간 소음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② 읽기 자료 2번에서 나타난 갈등을 정리해보세요.

▶ 층간 소음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소에 힘든 상황을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윗집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던 상황에서 소음은 계속 되었고, 결국 윗집의 윗집이 원인이었다. 당사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층간소음 문제를 서로 조심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③ 읽기 자료 1번의 사례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읽기 자료 2번의 사례는 문제가 해결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사 읽기 자료 2번에서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 2번에서의 사람들은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서 계속 갈등 중이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고, 윗집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9차시 · 『안녕 선생님』 책 포스터 만들기

『안녕 선생님』을 읽고 난 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영화 포스터는 영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관중들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우리가 만들 책 포스터는 책의 주제와 사건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아래의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안녕, 선생님』의 책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봅시다.

★ 포스터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면 위에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광고물

★ 포스터의 종류

포스터는 전달 내용(정보)에 따라 정치 포스터, 사회 포스터, 문화 포스터, 상업 포스터, 장식 포스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 포스터는 정치 선전과 관련되는 내용이며, 사회 포스터는 사회 공공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 계몽 등을 위한 포스터이다. 문화 포스터는 문화 예술에 관한 포스터, 스포츠 포스터는 스포츠와 관련된 포스터이며, 상업 포스터는 상품이나 기업을 선전하는 포스터이다.

한편 포스터는 주제에 따라 전쟁 포스터, 전시회 포스터, 연극 영화 포스터 등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포스터는 광고나 선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각 예술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포스터의 제작자들은 그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예술적인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스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161>